

# **전환(Transfer)으로서의 번역과 B언어로서의 한국어번역**

2022. 4. 22.

임형재(HUFS)

# 목차

##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 **문법-번역식 교수법:**

- **20세기의** 교육 방법론으로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국어교육에서 과학적 검증이나 교육학적 효과를 앞세우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을 수도 방법

- **외국어교육은 한자 교육이나, 라틴어 교육에서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절차**

- 추상적인 문법 규칙을 중심으로, 어휘 목록을 제공- 절차 중심의 교육
- 공통된 교육 기제로 주요 문법을 적용하여 만든 개별 문장을 번역하는 방법을 통해 교육

- **학습자의 외국어 사용을 위한 구술 능력을 신장에 관심이 없음**

-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어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L1)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서 수업**

- **문법-번역 교수 방법은 이제 언어 교육 이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
- **19세기 중·후반 개혁운동가들(members of Reform Movement)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관한 문제점 지적**
  - 언어는 더 이상 추상적인 문법 규칙과 어휘 목록을 통해 교육해서는 안됨
  - 문법은 존재를 가정한 연역적 방법에서 벗어나 귀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새로운 어휘는 학습자의 모어(L1)와의 관계가 아닌, 목표언어 안에서의 개념적 연관관계로 설명
  - 외국어 교육은 개별 문장 단위의 학습이 아니라 텍스트를 중심으로(Richards & Rodgers, 1986:5~8)
- **개혁운동가의 주장 : 외국어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기술이 중시, 수업 진행도 목표언어로**
  - 이 모든 관점에 따라 번역은 자연스럽게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주장은 21세기 외국어교육에서 외국어교육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인지
  -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기저 인식까지 자리 잡고 있음

- **리차드와 로저스(1986)**

- 개혁운동의 관점이 확산되면서 문법-번역 교수 방법이 점차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
- 문법-번역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사용

- **19세기~ 20세기, '자연적 방식'의 외국어교육이 선호**

- 20세기 이전 언어 교육부터 20세기를 넘어서까지 행동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외국어교육의 주요한 관점을 지배하고 있었던 접근법

- **자연교수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직접적 방식(직접교수법)이 발전**

- **직접교수법, 학습자 모국어 관여 없이 외국어를 바로 노출하는 교육**

- 외국어 학습도 학습자가 모국어(L1)를 배웠던 방식과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유도되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수업에서는 번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 20세기, 다양한 외국어교육 방법론의 대부분은 직접적 교육 방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 21세기, 외국어 교수법이나, 한국어교육 교수법 역시 이러한 관점의 DNA를 포함함
- 외국어교육, 상당수의 연구에서 '번역을 교육의 도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 하지만, Cook(1998:118)
  - 20세기 외국어교육의 현장에서 번역의 장점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히 제기
  - 번역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 직접적 교육의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
  - 직접적 교육 방식의 한계 수용, L2만으로 수업을 진행의 어려움을 인정
- **외국어 학습에서 L1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L1과 L2의 번역 기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
  - 한국어교육에서 번역이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요소로서 번역은 단지 교육의 도구로서의 방법
  - 즉, 번역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
- **L2 수업에서 번역 사용 비난하는 관점, 교육 도구로서의 번역의 기능을 무시한 결과 (Cook, 1998:119)**

# 목차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과목에 한국어 통번역교육 포함
  - 한국어 교원이 알아야 할 기능 교육의 한 분야로 제시
  -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교육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이나, 외국인 한국어교원의 교실 활동의 하나
- 문법-번역 방법을 변형해 활용하는 교수자와 교실 활동은 여전히 지지를 얻고 있음
  -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번역이라는 기제를 밝히지 않음
  - 대부분 쓰거나 말하기 등의 기능교육으로 변형되어 적용됨
- 이 경우, 번역이라는 기제는 한국어교육 후, 확인하는 수단
  - 학습자의 L1에서 L2로의 번역은 한국어의 생산과 표현능력 확인
  - 반대로 L2에서 L1으로의 번역은 수용과 이해능력 확인
- 학습자의 언어(L1)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수자의 번역능력을 활용하는 기제

- **한국어교육 현장-해외 한국어교육 현장과 일부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에서 유지됨**
  - 의사소통적 교육을 앞세워 그 교육적 효과의 논의를 터부시한 것은 아닐지.
- **제2 언어 영어교육, 번역은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 대부분 제2 언어 영어교육 평가에서 L2능력의 보조 수단으로 L1의 활용을 인정
  - 구술시험에서는 L1으로의 번역인 문장구역을 필기시험에서는 L2번역을 포함
-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확장에 따라, 중등학교 교육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인도 중등학교 교재개발, 터키 중등학교 교재개발 등이 진행 중
  - 중등교육 현장에서 번역 기제는 한국어교육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 **번역은 외국어교육에서 독립된 전환기능(Transfer)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될 수 있음**
  - 물론 번역이 L2 능력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하지만 보다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 번역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음
- **국내에서도 고등교육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통번역 수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한국어전공 교육과정에서 3-4학년과정에 통역과 번역이 필수 교과목 운영
-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 범주로 인정받고 있음**
  - 온라인시대, 인터넷을 가상공간에서는 일상의 정보화(인스타, SNS)로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석·박사 과정의 통번역교육을 넘어, 학부과정의 통번역교육 연구도 빠르게 증가

- **20세기 통번역교육, 이중언어 화자 대상 교육으로 외국어교육의 상위과정으로 인식**
  -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 신중한 통역과 번역을 처음 접하는 시기 - 외국어 수준이 중급 수준
  - 한국어와 모국어의 통번역 상황 경험 토픽 3급과 4급 수준에서 통번역 접함
  -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특수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 일수록 더 이른 시기에 통번역에 노출됨
- **해외 한국어 전공 3-4학년 교육과정에서 기능 중심의 통번역 교육내용 구성**
  - 하지만, 학습 목표는 여전히 한국어(L2) 능력을 확인하는 데 있음
  - 평가와 관련되어 번역 능력에 대한 평가 언급이 없음
  - 한국어의 통사 구조, 문체, 어휘, 관용표현을 내용의 제시하고 있음
  - 난이도가 있는 비전문 텍스트에 대한 문어 번역 능력을 요구함

#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 통번역 교육은 첫 번째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직무능력이라는 범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 밖에도 통번역 전문가로서의 범위를 포함한 교육
  - 일반적으로 20세기 통역사, 번역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군에 대한 교육
  - 훈련을 통해,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교육
  - 공인된 통번역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
- 특수 직업군이라는 통번역사의 지위와 위상도 변화가 발생
  -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계속됨(여전히 전문 영역은 존재함)
  - 이중언어 화자,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언어사용 행위로서의 통번역으로 확장

• **20세기, 외국어교육에서 번역 기제의 활용에 반대는 외국어(L2) 방향의 번역 연습에 특히 비판적**

-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L2)번역은 모국어(L1) 화자로만 수행하는 번역의 실무 업계의 규범
- 번역 현장에서 이러한 L1 번역사만이 전문가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의 확산 때문
- 외국어 수업 시간에 외국어 번역 활용은 쓸모 없거나 역효과를 낼 뿐,
- 학습자들이 실무에서도 L2 번역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 이러한 측면에서 비윤리적이라고 평가 절하(Marsh, 1987:24, Irons, 1998:29)

반대	찬성
1. 번역은 쓸모가 없다(학습의 중간과정)	1. 번역은 유용하다(번역은 언어행위)
2. 번역은 L1 간섭을 강화한다	2. 번역은 L1 간섭을 해소한다
3. L2 번역은 비윤리적이다	3. L2 번역은 비윤리적이지 않다

**20세기 말 언어 교육에서의 번역 활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번역 교육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해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 못함**

- 하지만, 위와 정반대의 이유로 번역 교육을 찬성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끊이지 않음에 주목

#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놓임

- **첫 번째는 20세기 말,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통역과 번역을 일상으로 인도**
  - 기존에는 국제사회의 협상과 협의를 위한 통역현장과 상위 문화 유입 목적의 번역이었음
  - 다양한 집단과 주체, 심지어 개인 간의 통역에서 외국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타문화를 기술하는 참여 관찰의 과점 등의 변화는 번역을 방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 **두 번째는 인터넷의 온라인 공간이 인류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 21세기, 온라인 정보 생산의 주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
  - Facebook, Instagram 등 각종 SNS를 중심으로 개인이 정보 생산의 중심
  - 소수 집단도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별 소비자와 소통 가능(예: BTS의 아미(ARMY) 현상)
- **세 번째는 기계번역(MT)의 성장**
  - 언어 간 번역의 자동화 노력,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80~90년대까지 인간 언어에 대한 분석과 재구성의 자동화
  - 90년대 이후, 온라인을 통한 정보 축적 확대, 온라인에서 언어 간의 장벽 제거의 방법으로 기계번역(MT)에 관심
  - 2016년 구글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에 인공지능 기반 번역 적용 후, 기계번역의 역할 비약적 발전

- **21세기,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

- 이런 변화로 통번역은 외국어의 사용의 범주 안으로 들어옴
- 타문화에 대한 자문화로의 번역과 통역의 방향도 자문화에 대한 타문화로의 번역이 성장
- 자문화 오프라인 중심의 번역에서 세계화를 위한 온라인 중심의 번역 시장이 열림

- **이제, 이중언어 화자의 특별한 기능교육인 통번역교육은 외국어교육의 연장선에서 이해됨**

- 때문에 외국어 능력의 확장된 범위에서 통번역 능력이라는 접점을 찾아 감

-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외국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에서 초점**

- 외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영역이 달라졌음
- 외국어를 통한 일상의 의사소통이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 정착
-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언어 정보가 기계번역(MT)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생활 안으로 들어옴

- **이런 변화에 따라, 국내 유학생 외에도 해외 현지 한국어 학습자가 빠르게 증가함**

- 한국어교육은 고등교육을 넘어 해외 여러 나라의 중등교육으로 확장
- 이외에도, 보수적으로 통번역교육의 대상을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6급 이상의 학습자의 누적과 증가
- Topik을 6급을 통과자가 한 해 2만 명 이상으로 추정, 누적 학습자는 지속 증가

- **21세기, 인류의 외국어 사용과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

- 통번역학은 외국어교육에 연속되는 경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
-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적인 외국어 사용 환경(직무 능력, 정보 생산의 주체 변화 등)등 변화
- 외국어교육의 확장된 범주와 중첩되어 놓일 수밖에 없음

- **이를 위해 번역 기제의 중심적 도입에 대한 논의**

- 통번역이 한국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존의 무용론과 유용론의 견해가 모두 얽혀 있을 것임

- **하지만 이 모두 각각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와 연구가 매우 부족**

- 학습자들의 번역 기제가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가능
- 반대로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역시 가능한 상황

- **대표 연구, 베르그렌(Berggren, 1972), 우자와(Uzawa, 1996)**

- L2 능력의 평가 연구에서 시험 도구로서 번역 기제에 초점, 교육 도구로서의 번역을 다루지는 못함
- 통역이나 번역을 수행하는 직업적인 이유로 L2 번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음

- **외국어로서의 전문 통번역교육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함**

- **결론적으로 전문 통번역을 L1방향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함**
  - 반대로 이러한 관점을 적극 수용,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의 번역을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 이제, 한국어교육에서도 번역 기제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보임
  - 그리고 20세기부터, 외국어교육에서 번역 방법론의 유용성의 지속적 주장
  - 최근 이러한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음 (widowson, 2003; House 2009; Cook 2010; Pym et al. 2013)
- **통번역교육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전환(Transfer) 능력**
  - 전문 통번역 훈련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함께 다섯 번째 기능으로 수용
  - 학습자 언어와 목표 언어 간의 언어문화의 대조적 차이 연구는 전문 통번역교육 기본내용임
  - 그리고 학습자 언어에 따른 접근과 현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는 전문 통번역을 위한 교육내용에 중첩됨
  - 한국어교육에서 현지 한국어교원과 현지 학습자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전환(Transfer) 능력을 공유함
  - 결국,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교육에서 전환(Transfer) 능력은 교원 교육에서도 유용할 수 있음

# 목차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 **영어 통번역의 경우,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외국어 학습을 통해 통번역사로 접근?**
  - 영어 통번역은 비영어권 통번역사에 의한 영어 통번역 수행이 오히려 보편적임
  - 비영어권 통번역사는 모국어가 다른 언어임에도, 영어를 제2 언어로 습득하여, 통번역을 수행함
  - 즉, 영어를 A언어가 아닌 B언어로 학습한 통번역사의 영어 통번역 행위(한국인 영어통번역)
-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타언어권 통번역사를 위한 영어교육 및 통번역교육 운영**
  -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통번역은 매우 생소하게 이해되고 있음
  - 최근 한국어교육이나 국내 통번역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
- **한국어를 제2 언어 또는 외국어로 학습한 언어 사용자가 수행하는 통번역**
  - 즉, 한국어를 통번역의 출발언어나 목표언어로 사용하는 통번역을 말함
  - 출발언어 또는 도착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전환 능력을 가진 외국인 통번역사
  - 그들의 한국어 사용 행위를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이라고 한다.

학습자 구분	출발언어	도착언어	비교
한국인 외국어 학습자	B언어: 외국어 (학습대상 언어)	A언어: 한국어 (학습자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인 외국어 학습자에 의한 통번역</b></li> <li>• 정확한 이해를 보다는 번역자의 이해 수준에 기반한 유창한 통번역</li> <li>• 타문화를 자문화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의 통번역</li> <li>• 유창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통번역을 위험요소로 안고 있음</li> </ul>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B언어: 한국어 ( <b>학습대상 언어</b> )	A언어: 모국어 (학습자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 의한 통번역</b></li> <li>• 완벽한 이해보다는 번역자의 이해 수준에 기반한 유창한 통번역</li> <li>• 타문화에서 자문화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의 통번역</li> <li>• 유창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통번역을 위험요소로 안고 있음</li> </ul>
한국인 외국어 학습자	A언어: 한국어 (학습자 언어)	B언어: 외국어 (학습대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인 외국어 학습자에 의한 통번역</b></li> <li>• 출발 텍스트에 충실한,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중심의 통번역</li> <li>• 자문화를 타문화로 알리고 전달하기 위한 통번역</li> <li>• 진실하지만 유창하지 않은 통번역을 위험요소로 안고 있음</li> <li>• <b>외국어의 한계로 해당 모어 화자의 PE가 요구됨</b></li> </ul>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A언어: 모국어 (학습자언어)	B언어: 한국어 ( <b>학습대상 언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 의한 통번역</b></li> <li>• 출발 텍스트에 충실한,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중심의 통번역</li> <li>• 자문화에서 타문화로 알리고 전달하기 위한 통번역</li> <li>• 진실하지만 유창하지 않은 통번역을 위험요소로 안고 있음</li> <li>• <b>한국어의 한계로 한국어 화자의 PE가 요구됨</b></li> </ul>

- **반대 개념에서, 한국어가 모국어, 외국어로 통번역을 수행하는 것 “A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 대부분 한국인이며, 일부 한국어를 모어로 습득한 교포 중심의 이중언어 사용자 포함
- **통번역에 참여하는 한국어는 두 그룹에서 외국어와 모국어라는 반대 위치에 놓임**
  - 한국어의 참여는 출발언어로 하는 번역과 한국어를 도착언어로 하는 두 가지 방향
  -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 외국어 학습자에 의한 통번역과의 목표언어의 접근 방향이 다름
  - 그러므로, 지향하는 언어 학습의 방향에서 차이를 가짐(PE의 필요성은 목표 언어의 방향에 놓임)
- **결국, 위 도표의 의미는 서로 다른 방향의 한국어 통번역이 존재함**
  - A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이 존재함.
  - 두 방향의 접근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
  - 적어도 통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상보적 관계에 놓임

# 목차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20세기 한국어의 B언어 통번역

- **20세기, B언어로서의 통번역 교육**
  -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된 영어 통번역 교육이 대표적임
  -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교육 진행
- **사실, 전통적으로 통번역의 접근은 낮은 문화권에서 높은 문화권의 언어로 접근(일부 종교적 목적 제외)**
  - 즉,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문화로 유입을 시도하는 기본 모형(20세기 아시아의 번역)
- **21세기, 더 다양한 원인과 요구에 의해 통번역이 작동됨**
  - 하지만 여전히 기본 모형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
- **20세기, 한국어를 B언어로 통번역을 외국인 통번역은 희소함**
  - 한국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 능력을 갖춘 이를 찾기도 어려웠던 시대
  - 이는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도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
  - 이는 20세기 중·후반, 인류의 타문화 접촉의 빈도와 양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
-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번역학은 국제회의나 국제교류를 전제로 발전해옴**

- **20세기 말까지, 한국어는 주요 언어에 비해 B언어로서의 지위가 높지 않음**
  - 때문에 한국어과 관련된 통번역은 주요 언어 중심, A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사가 담당
  - 심지어, B언어로서의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 등의 통번역도 한국인 통번역사가 담당함
  - 그리고, A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사가 양방향을 담당하는 것이. 것이 자연스러움
  - 이러한 지난 시기의 관례가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을 낮설게 함
- **20세기, 한국어를 B언어로 통번역을 남긴 경우**
  -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한 피터스 목사를 비롯한 몇몇 선교사
  - 주변국 공관원으로 활동하던 인물 중에서 한국어 통번역사를 찾을 수 있음
- **본격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발전하기 이전시기**
  -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과정은 생각할 수 없었으며
  - 한국어 통번역사 양성과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한국어교육 발전 또한 21세기의 과제임
- **90년대 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의 정보 축적**
  - 문화 간 정보 접촉의 가능성과 정보 유입, 그리고 타문화 정보 선택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옴

#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 **21세기 온라인 공간의 의사소통**

- 자문화를 알리는 국제화의 소통에서, 자문화의 가치를 타문화와 함께 향유하는 세계화의 의사소통으로 발전
- 20세기,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영어, 문화 예술 언어인 프랑스어, 법률 과학 언어인 독일어 중심 외국어 교육이 변화함

-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외국어 교육과 학습은 목적과 필요성이 바뀜**

- 업무 능력, 직무 능력, 문화 향유와 개인적 관심 중심의 외국어 학습과 교육

-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찾는다면,**

- 18세기 이후부터 인류의 의사소통과 정보 축적이 영어로 통합, 20세기 가속화
- 그 결과, 아시아와 제3 세계 국가를 중심 20세기 주요 외국어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의 세력 축소되고,
- 학문적 과학적 정보 접근을 위한 외국어학습 부담이 줄어, 주변 언어와 관심 언어로의 주의를 돌리는 여유 확보
- 특히, 냉전의 종식으로 문화를 접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장벽이 없어짐
- 빠른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문화적 세계화 큰 영향을 미침
-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IT, 즉,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축된 인터넷이라는 정보 축적의 공간

- **결국, 21세기, 영어로 인류 문명의 정보 통합되고 학문 과학 언어의 중심이 됨**

- 다양한 언어로 산출된 인류의 정보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공유됨
- 이 가상공간에서 타문화에 대한 언어적 장벽을 허무는 기계번역(MT)이 등장함
- 2016년 구글을 통해서 등장한 MT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의 통합과 문화적 통합을 이끌고 있음

- **그 결과 주요 언어 중심의 외국어교육은 다양한 외국어교육으로 전환됨**

#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 **한국어가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에게 통번역의 대상 언어가 된다는 것**
  -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과 타문화 범주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21세기에서의 외국어 학습과 통번역교육의 대상 언어는 주어지는 환경이 아님**
  - 현대 외국어교육과 통번역 교육은 매우 구체적인 접근 이유(경제적, 직업적)를 요구함
  - 예를 들어, 개인적 관심, 직업적 필요성 또는 거주 지역의 변화 등 실제적인 필요성이 우선
  - 교육 제도의 일방적 제공이나 막연한 미래의 필요 가능성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B 언어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 한류와 같은 문화적인 확장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 것도 사실
  - 하지만, 새로운 소통 방식과, 외국어의 사용 환경의 변화가 배경이 되고 있음
  - 이에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은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에 궤를 함께함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류를 시작점으로 잠시 순화하는 문화적 흥행을 넘음
  - 한국의 IT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과 어울리며 실용적 목적의 B언어 지위를 확보
  - 한국 문화의 가치를 함께 향유하는 세계화를 위한 B 언어 교육으로 통번역을 고민해야 함

- **21세기, 언어사용의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어의 경쟁력**

-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하는 현상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의 신장으로만 설명할 수 없음
- 산업의 발전, 한류의 지속 등으로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도 외국인 이 증가하고, 언어 학습자가 늘고 있음
- 즉, 신흥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도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국내 대학의 제2 외국어 선택과목의 변화에서도 확인**

- 국내 대학에서도 독일어, 프랑스어 중심의 외국어 선택에 변화가 발생함
-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으로 다양화
- 특히, 신남방-신북방에 대한 언급이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제도적인 제2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함
- 이와 함께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특히 해외 중등학교 외국어교육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함

# 목차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 **B언어란?** 통번역학에서 통번역사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
- **개념적인 차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VS. B언어로서의 한국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한국어를 외국어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학습과 습득, 그리고 교육을 말함
- **그러므로 B언어로서의 한국어는 전환(Transfer)의 대상이 되는 통번역자의 두 번째 언어**
  - 목표언어에 대한 개별 언어의 사용 능력이 아닌 두 언어 간의 전환을 위한 능력이 중요함
  - 두 언어가 가진 문화적 해석 능력과 해석에 대한 통번역자의 전환 능력에 주요한 관심이 있음
- **B언어 통번역교육**
  - 통번역사의 양성과 교육과정, 통번역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비평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포함
  - B언어로서의 한국어 사용과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함
  - 그 위에 A언어와 B언어의 전환 능력을 신장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

-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확산과 한국 사회의 변화**

-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급 학습자가 빠르게 증가함
- 한국 문화의 확산으로 각 나라와의 교류가 빠르게 증가함
-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 교류가 증가(특수 언어의 확산)
- 이들 지역으로부터 한국 사회로의 경제적 이주가 급속하게 늘고 있음
- 한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 **다양한 국가들과 한국의 밀접 교류로 해외 한국어 사용자의 역할 증대**

-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화 되어가고, 세계화 되어감
- 이 과정에서 A언어로 한국어 통번역사와 함께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사의 활동이 증가함
- 특히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번역에서 활동 증가
- 해외 한국어 통번역 시장의 빠른 성장 통번역사 양성의 제도화(MTI, CATTI)

- **관심의 척도가 되는 비정규 번역시장의 확대**

- 이 외에도 해외 현지의 팬번역 시장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 문화가 한국어로 제공되는 B언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시장이 확장
- 한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통번역교육은 주요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심
- 특수 언어권(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부 유럽 등의 언어)의 통번역사 양성은 제한적임

- **특수 언어권에서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직업군이 주목**

- 전문 직업군이라 인식되며, 직업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요 직무능력을 인정
- 현지 한국 관련 글로벌 기업에서의 활동과 현지 관련기업에서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결과적으로 해외 한국어 학습자는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이 한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가 됨

# 목차

1. 외국어교육 범주와 번역 기제
  1. 일반적인 한국어교육의 범주
  2. 기능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3. 특수목적, 한국어 통번역교육
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개념
  1. 20세기 한국어의 번역의 상황
  2. 21세기 언어 사용과 환경의 변화
  3. 21세기 한국어와 B언어의 지위
3.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
  1.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2.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통번역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의 동경

- **통번역은 일반적으로 두 언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
  - 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두 언어에 대한 언어적인 직관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 전문적인 훈련과 언어 전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요구됨
- **20세기,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통번역사**
  - 외국어 학습자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꿈의 직업으로 인식됨
  - 국가 간 협상과 타협, 충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
  - 전문성을 가진 기능적 직업인으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형성
- **우리가 가진 통번역사의 이미지**
  -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있고 국가 간 협상과 타협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
  - 이런 20세기의 시대 배경과 맞물린 이미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이미지와 인식 배경으로 인해**

- 표면적으로 한국어를 학습자는 많지만, 번역이나 통역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많지 않음
- 외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어는 통역하고 문어는 번역하는 행위를 지속함
- 하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 **통·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경외**

-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경외가 아닌가 함
- 즉, 통역과 번역이라는 외국어 사용 능력
- 또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언어사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통번역은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 **20세기 연구에서, 통번역 능력에 대한 전제**
  -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중언어 화자의 능력
  - Nida의 3단계 번역 모델-분석, 전이 및 재구성의 개념에서도 온전한 균형 잡힌 이중언어 화자가 기준
- **하지만, 통번역의 실재를 기술하는 연구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임**
  - 통번역교육과 통번역에 대한 평가에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어휘 및 문법적 기능과 의미의 전이를 넘어서는 통번역
  - 즉, 심미적인 통번역 표현을 위해서는 모국어 능력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함
  - 중국의 번역학에서 푸레이(傅雷), 쉬훤(許鈞)도 유사한 견해를 가짐
- **만약, 이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의해서만 통번역이 행해진다면,**
  - 통번역이 온전한 이중언어 화자의 전유물이라면, 통번역사의 모국어 능력에 주목하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임

- **르드레르(Lederer)나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등의 연구**
  -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에서는 국제회의에서 통역사나 번역사의 모국어로의 통번역을 기본으로 함
  - 언어분류를 통번역사의 언어 숙달도를 기준으로 구분함  
'A언어(A language)', 'B언어(B language)', 'C언어(C language)'
  - 통번역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능동언어(active language)'와 '수동언어(passive language)'로 구분하기도 함
- **이러한 통번역사의 언어 능력에 대한 구분은 두 언어 능력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음**
  - 결국, 이렇게 통번역사의 언어를 숙달도에 따라 구분하거나,
  - 언어의 숙달도를 기준으로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를 규정하는 것,
  - 이는 통번역사의 언어의 능력이 적어도 이상적이 이중언어 사용자가 아님을 설명함

# 통번역사를 위한 B언어의 교육과 학습

- 어떤 이는 통번역 교육과정은 기능 훈련에 있다고 하지만,
  - 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은 **B언어교육**이 그 핵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
  - 그래서 어느 나라든 통번역사 양성을 전문 교육과정에는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B언어 표기함  
중국어 통번역, 영어 통번역 교육과정
  - 만약 이것이 단순하게 통역과 번역에 대한 기능 훈련이라고 한다면, B언어에 따른 구분 역시도 필요 없었을 것임
- **통번역은 이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자만의 전유물이 아님**
  - 심지어는 최소한 고급 수준의 B언어를 구사하거나,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B언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문 통번역 어디에도 통번역을 언어 능력에만 의존하거나 설명하지 않음
  - 통번역을 '언어 간의 전환이라는 형식과 문화 간 소통이라는 내용의 결합'이라고 설명함

-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통번역, 번역학에서 말하는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 한국어 학습자를 통번역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구성 방안의 내용에는
  -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 등은 기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음
- **한국어 학습자의 통번역 능력에 따른 교육,**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교육,**
- **한국어 학습자의 통번역 목적에 따른 교육,**

• 한국어교육에서 “B언어로서 한국어 통번역”을 논의하는 것은  
학습자가 한국어교육에서 전문 통번역 교육과정(국내외 통번역대학원의 기능중심 교육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 참고자료

1.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19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Cook, Guy. (1998). Use of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In Baker, M.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London: Routledge. 117-120
3. Marsh, M. (1987). "The value of L1>L2 translation on undergraduate courses in modern languages". In H. Keith & I. Mason (Eds.), *Translation in the Modern Languages Degre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at Heriot-Watt University, Edinburgh, 5-7 Jan. 1986* (pp. 22-30). Edinburgh: CILT.
4. Irons, J. (1998). "Der var saa deiligt ude paa Landet...." *Sprog forum* 4(11), 26-32.
5. Kozue, Uzawa. (1996). *Second Language Learners' Processes of L1 Writing, L2 Writing, and Translation from L1 into L2*,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6. House, J. (2008). Using Translation to Improve Pragmatic Competence. In Alcón Soler, E. and Martínez-Flor, A. (Eds.), *Investigating Pragmatic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Testing*, (pp. 135-152). Bristol,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7. Cook, Guy. (2010).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 Argument for Reassess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 Pym, A., Malmkjaer, K. & Gutiérrez-Colón Plana, M. (2013). *Translation a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Translation in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9. Widdowson, H. G. (2003). *Defining Issu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Union.